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계획방향

- 미국 반의존형 노인시설주거의 노인거주자와 근무자의 거주후 평가결과를 기초로 -

Design Guidelines for the Housing for the Elderly

- Based on the POE of Assisted Living Facilities in USA -

오 찬 옥*
Oh, Chan-Oh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POE of assisted living housing and suggest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housing complex for the elderly. The subjects were residents(old persons) and staff who lived or worked in three assisted living housing in Cincinnati, Ohio. Interview and survey method using questionnaire were used.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location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in or near the existing housing area, 2) the arrangement of spac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consist of small groupings rather than large and long corridor pattern, 3) the number of the housing units for the elderly should be small, under 100 units, 4) the housing units should be used by one older persons so that she/he could have the chance of privacy and personalization, 5) various common spaces such as art and craft room or game room should be provided, 6)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7) the color and patterns of interior finish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floors or spaces and familiar ones should be used to make a homelike environment.

I. 서 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3대 동거의식의 변화로 단독노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단독노인세대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주거의 계획과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생활의 질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한 자립생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환경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시설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노인들은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이므로¹⁾ 이들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주거유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것이 반의존 노인을 위한 노인시설주거이다. 즉 완전한 독립생활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요양원이나 병원 등 완전의존형 생활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노인시설주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리라 예상된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의존 노인을 위한 노인생활보조주택(assisted living housing)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²⁾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1) 오찬옥, 이연숙(1993.2),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2호, 통권52호, p.43

2) Barton, Linda J.(1997), A Shoulder to Lean on: Assisted

*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수 있다. 이 노인시설주거는 자립노인을 위한 일반 노인주택과 의존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반의존 노인을 위한, 하루 24시간 전문적인 개인보호가 가능한 장기적인 집단 거주지이다³⁾.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오래 전에 이미 노인국에 도달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한편, 거주 후 평가(POE)란 건물이 지어져 입주하고 난 후 건물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피이드백 과정으로⁴⁾, 건물의 계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시공(건축), 입주 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POE는 계획가 및 디자이너들에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미진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정보는 미래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디자인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며, 이 기초자료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 지침 및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POE는 건물 입주자와 그들의 욕구에 중점을 두며 결과적으로 사용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더욱 인간적인 환경을 창조하게 하고, 그 환경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더 만족하게 해 준다. 결국, 이러한 기초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계획가와 디자이너들은 건물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인 노인생활보조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거주자와 근무자의 시설주거에 대한 거주 후 평가결과를 기초로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계획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시설주거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Living in U.S., American Demographics, 19, p.45

3) 오찬욱(1999.9),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디자인 평가요소,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p.40

4) Preiser, W.F.E., Rabinowitz, H.Z. and White, E. (1988), Post-Occupancy Evalua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3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노인생활 보조주택 중 본 조사에 협조자를 보인 'B', 'C', 'O'의 3개 노인시설주거에 대한 거주 후 평가결과를 기초로, 반의존 노인을 위한 노인 시설주거 계획시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 노인생활보조주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시설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설과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노인시설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거주자 4인씩 총 12인과는 구조적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노인시설주거 근무자의 경우는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노인 시설주거 대표자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3개 시설에서 각각 13부, 12부, 6부씩 총 31부가 회수되었고, 따라서 총 43명의 사용자 평가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담 및 설문조사내용은 23개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평가요소⁵⁾에 대한 평가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ANOVA, Duncan의 다원범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조사결과

1. 대상 노인시설주거의 특성

1) 건물특성

(1) B 노인시설 :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와 요양원이 함께 있다. 이 시설은 1990년에 건설된 3층의 구건물과 1996년에 증축된 2층의 새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중정이 있다.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에는 스튜디오형과 일침실형의 아파트 주거단위 85개

5) 오찬욱(1999.9), op.cit., p.46

가 건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며, 공동공간인 게임실, 취미실, 퍼즐실, 도서실, 미용실은 2층에, 도서공간(자료센터), 선물가게, 라운지 공간, 다용도 예배공간, 기도실 등은 1층에, 식사실, 응접실, 세탁실, 욕실, 간호사실은 각 층에 위치하며 지하에 수납실이 위치한다(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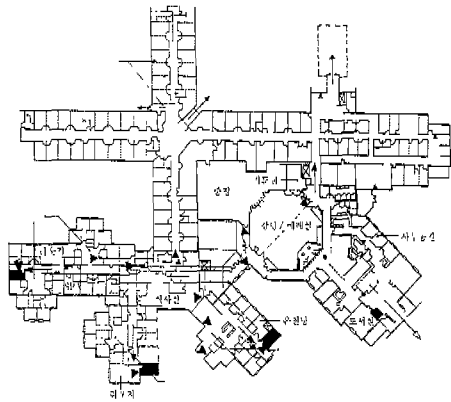


그림 1. B 노인시설주거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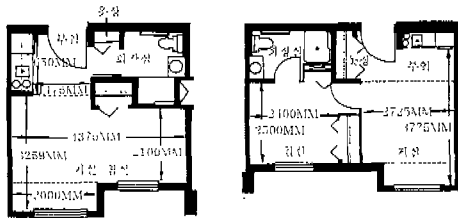


그림 2. B 노인시설주거의 주거단위 평면도

(2) C 노인시설 : 1990년대에 지어진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와 요양원이 3층으로 된 건물내에 함께 있다. 주거단위는 81개로 스튜디오형이나 일침실형이며 2층과 3층에 위치한다. 도서실, 상점, 사무공간, 식사실, 거실공간(카드실/라운지), 강당, 회의실, 개인용 식사실, 취미실(예술공예실), 운동/치료실, 이·미용실 등 대부분의 공동공간이 1층에 위치하고, 거주자용 부엌과 세탁실이 각 층에 위치한다(그림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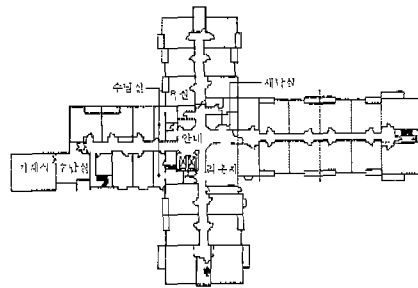


그림 3. C 노인시설주거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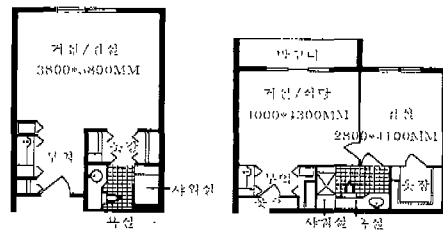


그림 4. C 노인시설주거의 주거단위 평면도

표 1. 노인시설주거의 건물특성

	B시설	C시설	O시설
노인시설유형	노인시설주거 + 요양원	노인시설주거 + 요양원	자립형 노인시설주거+반의존형 노인시설주거+요양원
건물층수	2층과 3층	3층	1층
주거단위 수	85개	81개	78개
주거단위 유형	스튜디오/일침실형	스튜디오/일침실형	개인용/반개인용
건축 년도	1990년(1996년 개조)	1990년	1975년
공동공간의 종류	1층: 도서공간(자료센터), 선물가게, 라운지 공간, 다용도 예배공간, 기도실 등 2층: 게임실, 취미실, 퍼즐실, 도서실, 미용실 지하: 수납실 각층: 식사실, 응접실, 세탁실, 욕실, 간호사실	1층: 도서실, 상점, 사무공간, 식사실, 거실공간(카드실/라운지), 강당, 회의실, 개인용 식사실, 취미실(예술공예실), 운동/치료실, 이·미용실 등 각층: 거주자용 부엌, 세탁실	도서실, 선물가게, 라운지, 예술공예실, 식사실, 미용실, 세탁실, 예배실, 공동욕실, 간호사실, 운동실, 부엌겸 스낵코너, 은행, 우체국, 식사실 겸 활동실

(3) O 노인시설 : 자립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와 요양시설이 함께 있는 대규모 노인주거단지로서, 1975년에 건설되었다. 반의존 노인을 위한 노인 시설은 1층 건물로 요양시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78개의 스튜디오형 주거단위가 있어 이를 개인이 사용하면 개인용, 2인이 사용하면 반개인용이라고 하며, 공동공간은 1층과 지하공간에 분산배치되어 있다(그림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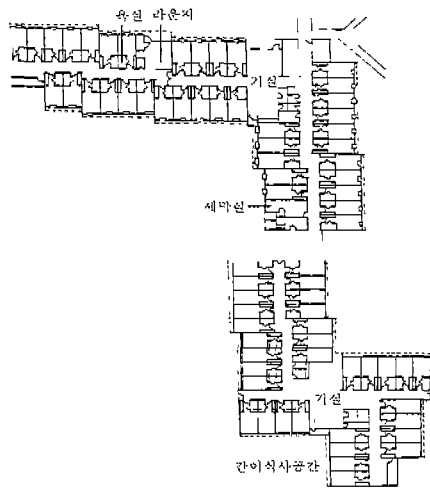


그림 5. O 노인시설주거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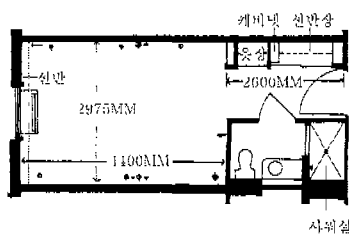


그림 6. O 노인시설주거의 주거단위 평면도

2) 거주자 특성

(1) B 노인시설 :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86세로 그 분포는 67세에서 101세였다. 이중 87.5%가 여자노인이었고 25%가 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50%가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매달 시설에 지불하는 기본비용은 스튜디오형에 거주하는 경우는 1,730달러(208만원), 일침실형의 경우는 2,160달러(259만원)였다.

(2) C 노인시설 : 평균 연령은 86세로 최소 72세에서 최고 104세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비율은 90.0%였다. 휠체어 사용자의 비율은 30.0%였고, 보행기 사용자는 20.0%였다. 한달 비용은 스튜디오형인 경우 2,050달러 (246만원), 일침실형인 경우 2,375달러(328만원)-2,795달러 (335만원)였다.

(3) O 노인시설: 노인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87세로 62세에서 97세 노인까지 있다. 73%가 여자노인이고 4%가 휠체어를, 64%가 보행기를 사용한다. 매달 지불하는 비용은 반개인용은 1,977-2,616달러 (237만원-324만원), 개인용은 2,646-3285달러 (318만원-394만원)이다.

2. 조사대상자 특성

1) 노인거주자 특성

(1) B 노인시설 : 면담에 응한 노인거주자 4인의 평균 연령은 81세였고, 모두 여자노인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2.8년이었으며 두 노인은 스튜디오형에, 다른 두 노인은 일침실형에 거주하고 있었다. 보행기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 각각 한 사람씩이었다.

표 2. 조사대상시설의 거주자 특성

	B시설	C시설	O시설
평균연령	86세(67-101세)	86세(72-104세)	87세(62-97세)
여성비율	87.5 %	90.0 %	73.0%
휠체어사용자 비율	25.0 %	30.0 %	4.0%
보조보행기 사용자 비율	50.0 %(스쿠터 15.0 %)	20.0 %	64.0%
원납입비	alcove/스튜디오형 - \$1,730 일침실형 - \$2,160	스튜디오형 \$2,050 일침실형 \$2,735-\$2,795	반개인형 \$1,977-\$2,616 개인형 \$2,646-\$3,285

표 3. 조사대상 노인거주자 특성

	B시설	C시설	O시설
평균연령	81세(84, 67, 90)	88세	84세
성별	여자 4인	여자 4인	여자 3인, 남자 1인
결혼상태	사별	사별	사별
거주기간	평균 2.8년	3.8년(1-8년)	5년(1년-17년)
주거단위유형	스튜디오형 2, 일침실형 2개	일침실형	개인형 2, 반개인형 2
휠체어, 보행기 사용	보행기 1인 휠체어 1인 사용안함 2인	사용안함	보행기 3인 사용안함 1인

(2) C 노인시설 : 면담 노인의 평균연령은 88세였고,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노인들이었다. 이들은 이 시설주거의 일침실형 아파트에서 평균 3.8년간 살고 있었으며 모두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3) O 노인시설 : 면담노인의 평균연령은 85세였고, 모두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으며 1인은 남자 노인이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5년으로 3인은 1년정도 거주하고 있었고 남자노인은 17년간 이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 노인은 개인용에, 두 노인은 반개인용 주거단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세 노인이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시설근무자 특성

(1) B 노인시설 : 13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32세였고 모두 여성 근무자였다. 이 시설에서의 근무년수는 평균 4.6년이었으며 노인관련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11년이었다.

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4.4년이었고 노인관련 시설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6.6년이었다.

(3) O 노인시설 : 6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40세였고, 모두 여성 근무자였다. 이 시설에서의 근무년수는 평균 5.8년이었고 노인관련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8.5년이었다.

3. 노인시설주거 사용자의 거주후 평가결과

노인시설주거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하였으며 노인시설주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과 던컨의 다원범위분석을 하였다.

1)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

B와 C 노인시설주거의 노인거주자와 근무자들이 O시설의 경우보다 노인시설주거의 디자인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용자 자신들의 주 사용공간인 아파트 주거단위나 근무공간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B와 C시설의 경우가 O시설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4. 조사대상 근무자의 특성

특 성	B시설 (N=13)	C시설 (N=12)	O시설 (N=6)
연령(평균)	32.3세	38.3세	39.8세
성별	여자 13 남자 0	여자 8 남자 4	여자 6 남자 0
현 시설 근무기간	4.6년	4.4년	5.8년
노인관련시설 근무기간	10.8년	6.6년	8.5년

(2) C 노인시설 : 조사에 응한 12인의 평균 연령은 38세였고 여자 8명, 남자 4명이었다. 이 시

표 5. 각 노인시설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비교

평가	O 시설	B 시설	C 시설	F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전반	2.3 a	3.3 b	3.2 b	5.89**
주거단위/근무공간 디자인	2.0 a	3.1 b	3.3 b	8.83**

ab: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2) 노인시설주거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요소별 평가

3개 노인시설주거 각각에 대하여 23개 노인시설주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결과 표6과 같이,

전반적으로 B와 C시설에 대한 평가가 O시설의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시설의 건립년도가 B나 C시설보다 15년정도 앞서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낙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1) 기술적 평가요소

기술적 평가요소의 경우, 음향성에 대해서는 세 시설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온도, 조명, 환기에 대해서는 B와 C시설이 O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해서는 B시설이 O와 C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B시설은 모든 기술적 요소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O시설은 모든 요소에 대하여 B나 C시설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기능적 평가요소

기능적 평가요소의 경우, 공간크기, 공간구성, 접근성,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은 B와 C 시설이 O 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족방문 용이성에 대해서는 B시설이 C와 O시설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사용상의 융통성에 대해서는 B시설이 O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 시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B시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시설의 경우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나 가족방문의 용이성은 B시설의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O시설의 경우는 모든 측면에서 B나 C시설의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평가결과는 노인시설주거의 위치, 공간크기, 공간구성, 접근성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에 대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 B와 C시설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주거지역과 격리되어 위치한 O시설의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조사결과⁶⁾

표 6. 각 노인시설주거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요소별 평가비교

평가요소		O'시설	B'시설	C'시설	F
기술적	음향성	2.4	3.2	3.1	2.77
	온도	2.2 a	3.2 b	2.9 b	4.83 [*]
	조명	1.9 a	3.4 b	3.1 b	10.14 ^{***}
	환기	2.1 a	3.2 b	2.9 b	7.91 ^{***}
	안전성	2.8 a	3.8 b	3.3 a	9.27 ^{***}
	보안성	2.8 a	3.6 b	2.7 a	6.60 ^{**}
기능적	공간 크기	2.3 a	3.2 b	3.0 b	4.45 [*]
	공간 구성	1.6 a	2.9 b	3.0 b	12.83 ^{***}
	접근성	2.5 a	3.5 b	3.4 b	4.60 [*]
	방향성/길찾기	2.4	3.0	2.8	1.86
	지역사회 연결성	2.5 a	3.5 b	3.1 b	5.67 ^{**}
	가족방문 용이성	3.0 a	3.7 b	3.1 a	3.67 [*]
	사용 융통성	2.7 a	3.5 b	3.1 at	4.59 [*]
	행동적	건물 외관	3.3	3.6	3.6
내부의 미	2.7 a	3.6 b	3.6 b	7.25 ^{**}	
사회적 상호작용	3.0 a	3.7 b	3.0 a	6.86 ^{**}	
프라이버시	2.3 a	3.6 b	3.6 b	16.77 ^{***}	
개인화	2.2 a	3.5 b	3.4 b	12.15 ^{***}	
동계/선택/자율성	2.2 a	3.4 b	3.3 b	7.58 ^{**}	
자극/도전성	2.4 a	3.4 b	2.9 at	4.23 [*]	
친밀성/집같음	2.8 a	3.6 b	3.0 a	7.21 ^{**}	
자립성	3.0 a	3.6 b	3.1 at	3.29 [*]	
관리	2.9	3.5	3.2	1.95	

a,b: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끼리만 어울리기보다는 다른 연령층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노인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즉 노인시설주거를 외딴 곳에 격리시켜 위치시키면 주변 지역사회와의 접촉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등의 방문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시설주거는 격리된 곳보다는 기존의 주거지역내에 또는 인접하여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시설주거내의 공동공간을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향으로 계획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거주 노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인들의 삶에 활기와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

6) 오찬욱(1993.2), op.cit., p.44

다. 이는 또한 노인시설주거를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노인시설주거가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주거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공간크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O시설의 경우 자립형 노인시설과 반의존 및 요양원 시설이 혼재하는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주거단위도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스튜디오형 주거단위를 1인 혹은 대부분 2인이 공동사용하게 되어 있어 나온 결과라 보여진다. 자립형, 반의존형, 완전의존형 시설이 함께 있는 것은 이동성을 적게 하는 등 장점은 있으나, O시설의 경우같이 비체계적으로 혼재시켜 놓을 경우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개인주거단위의 경우는 1인용과 2인용의 경우 크기를 다르게 함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공간구성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B와 C시설의 경우, 노인거주자용 개인주거단위 공간들은 십자형 배치형태를 하여 각 윙별로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게 해 주고 공동공간들은 1층에 집중배치한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O시설의 경우는 공동공간들을 개인주거단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곳에 분산배치 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노인만이 공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시설주거의 공간구성은 기본 평면형태를 일자형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집단을 형성해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덜 지루하고 시설이 아닌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공동공간들은 식사공간같이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 주변에 집중배치 시킴으로써 일부러 특정한 공동공간을 찾아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해 준다.

접근성에 대해 B와 C시설의 경우가 C시설의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O시설의 경우 자립형 노인주거와 완전의존용

노인주거가 혼재해 있고 일부 공동공간은 공용하게 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B와 C시설의 경우 건물입구에 캐노피를 아주 길게 두어 날씨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차에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현관문도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들이 사용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 노인시설이 2층이나 3층으로 된 건물이라 해도 엘리베이터를 곳곳에 설치하여 층에 상관없이 가고자하는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체 바닥이 단차 없이 편평하고 문의 폭을 충분히 넓게 하여 휠체어나 보조보행기 사용자, 또는 어렵게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공간이든 접근 용이하게 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가족방문 용이성과 사용상의 융통성 측면에 있어서도 B시설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B시설의 경우 곳곳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라운지, 소파나 의자와 테이블, 피아노 등을 두어 사용상의 융통성을 크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족 등이 방문했을 경우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행동적 평가요소

행동적 요소의 경우, 내부공간의 미, 프라이버시, 개인화, 통제성 측면에서는 B와 C시설이 O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성 측면에서는 B시설이 C나 O시설보다, 자극성과 자립성의 경우는 B시설이 O시설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물외관과 관리에 대해서는 세 시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B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C시설의 경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친밀성이 B시설의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시설의 경우는 모두에서 B나 C시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행동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노인시설주거의 개인주거단위와 공동공간, 실내마감재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화 및 통제성에 대해 B와 C시설은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인데 반해 O시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B와 C시설의 경우 거주자용 주거단위는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반면, O시설의 경우 모든 주거단위형태가 스튜디오형임에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안될 경우 2인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와 개인화도 제한을 받고 또한 조명, 온도, TV시청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O시설의 한 노인 거주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거단위를 같이 사용하는 노인간에 성격이나 생활스타일이 맞지 않아 주거단위에서는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거주자의 공간이나 공동공간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통제성/자율성의 경우, O시설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B와 C시설의 경우 각 개인공간에 간이부엌이 제공되어 거주자가 원할 경우 식사나 간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O시설의 경우는 개인공간 유형이 스튜디오형 한 가지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B와 C시설의 경우는 스튜디오형과 일침실형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공동공간의 경우, 노인마다 관심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르므로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B시설의 경우 C나 O시설의 경우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B시설이 C나 O시설의 경우보다 다양한 공동공간을 제공해 주어 노인거주자를 개인공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거주자들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B시설의 경우 로비공간은 물론이고 복도공간, 세탁공간 앞, 식사공간 앞 등 곳곳에 의자들을 두어 거주자들간의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자극/도전성(치료디자인)에 있어서도 B시설이

O시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B시설의 경우 어둡고 수동적인 생활을 유도하도록 디자인된 O시설의 경우보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밝고 거주자에게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에서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짐으로써 무언가 도전해 보고싶은 욕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해 줌으로써 치료효과도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B와 C시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O시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B와 C시설은 전반적으로 밝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친밀한 집과 같은 분위기인 반면 O시설의 경우는 어둡고 칙칙한 시설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B와 C시설은 바닥, 벽, 천장, 가구, 창문처리방법, 조명 등의 재료와 색상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주고 서로간에 조화를 잘 이루었으며 공간마다 다른 색상과 문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식별성과 새로움을 준 반면, O시설의 경우는 특히 공동공간에 거의 붉은 벽돌과 단색의 벽과 바닥을 사용함으로써 어둡고 단조로운 시설분위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시설주거의 위치는 가족이나 친지가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또 노인 거주자들도 주변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내나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둘째, 노인시설주거의 공간구성은 일자형으로 긴 복도형태보다는 십자형 등 소규모 구획화시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동공간은 개인주거공간과 너무 떨어지지 않은 거리내에, 식사공간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가까이에 집단배치 시키는 것이 노인들로 하여금 이용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로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시설주거의 크기는 너무 대규모화하기보다는 100세대 이내로 소규모화하여 집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인시설주거의 개인주거공간은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프라이버시와 개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주거공간에 간이부엌을 제공하여 노인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존재의 의미를 높여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 노인시설주거에는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공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새 키우기, 식물재배, 퍼즐게임, 헬스센터 등 노인들의 건강에 치료효과가 있는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들을 배려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시설주거를 계획함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혼자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이 없는 바닥과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등 접근성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인이다.

일곱째, 노인시설주거의 실내마감재의 색상과 문양은 노인들의 길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층별로 다르게 하거나 조닝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동공간의 경우 공간마다 다른 색상과 문양의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지루함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내마감재는 일반 주거에서 사용하는 종류나 색상, 문양 등을 사용하여 집같이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본 연구는 미국의 노인시설주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종류의 노인시설주거가 지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노인시설주거에 대한 거주 후 평가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오찬옥(1999), 반의존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디자인 평가요소,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 40-47.
2.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2), 35-45.
4. Barton, Linda J.(1997), A Shoulder to Lean on: Assisted Living in U.S. American Demographics, 19.
5. Brummett, William(1997), The Essence of Home: Design Solutions for Assisted Living Hous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6. Hunt, Michael E.(1991), The Design of Supportive Environments for Older Peopl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9(1/2).
7. Preiser, W.F.E., Rabinowitz, H., and White, E.T.(1988), Post-Occupancy Evaluation,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8. Regnier, Victor(1994),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